

# “미군 공여지역 새로운 50년의 축”

## 김 지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미군공여구역을 바탕으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월2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공여지역은 새로운 50년을 내다볼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협정 답사를 해보면 공여지역 같은 좋은 땅이 없다”며 “미군기지는 잘 가꿔져있고, 명당자리에 잘 관리돼 왔다.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건물도 많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축이 경인축이 주축이었다가 그 뒤로 경부축이 중심”이라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경의축 신의주까지다. 경의축이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또 “공여지역에는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대학, R&D연구단지 등을 할 것이다”며 “획기적 미래를 향한 곳으로 바꿀 것이다.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단지, 돈을 번다든지 하는 수준이 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월2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공여지역은 새로운 50년을 내다볼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땅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상훈 광운대학교 부총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사회생활에 큰 도움 되길”

## 2007상반기 도농여성교육 개강식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22일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20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도농여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도농여성교육은 6개 과정 180여명이 수강하며, 홈페이지관리반은 3월5일부터 5월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12회 실시하고, 건강발반찬반은 3월7일부터 4월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 테마요리반은 3월 9일부터 5월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12회, 규방공예반은 2월26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24회, 생활도예반은 3월14일부터 4월20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총12회 수강한다.

또한 한식조리반은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매주 화,수,금요일 총10회에 걸쳐 이론이 실시되고, 실기반은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총1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도농교육시 주부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 수강부터는 한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22일 사회생활에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고 2007 상반기 도농여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식조리반을 신설했으며, 또한 웰빙풍조에 맞게 건강발반찬반과 요리주제별로 맛과 만드는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테마요리반을 신설했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개강식 인사를 통해 “여성이 의정부시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 여러분도 자기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6개 과정은 사회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분야로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혁신릴레이 메시지 모음집 발간

##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강력한 추동력 확보



의정부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월17일까지 시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혁신릴레이메시지 모음집을 발간했다.

“혁신은 자기를 성찰시키고 잘 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만의 +a 능력을 배양시키고 발휘해서 그 열매를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혁신리더의 일관성 있는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1월17일까지 시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혁신릴레이메시지 모음집에 실린 내용이다.

시가 지난해 10월말 혁신 냉소주의 극복을 통한 혁신문화 정착 프로젝트로 간부공무원 혁신메시지 릴레이를 실시한 결과 혁신의 필요성과 마인드가 조차내 공유되고 있

는 큰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 달 26일부터 6급 담당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혁신릴레이는 혁신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그 동안 간부공직자가 학습하고 생각해 오던 것을 온라인에서 공유해 오다 혁신의 강력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모음집을 발간, 배부하게 되었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발간사에서 “그동안 혁신을 추진해 오며 장애요인으로 냉소주의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릴레이를 시작했다”며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변화와 혁신 분위기가 한층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가족 같은 직장분위기 造成

## 의정부경찰서 업무 혁신토론회 개최

의정부경찰서(서장 신정배)는 2월23일 2층 회의실에서 서장 및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의정부경찰 업무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중요범인 검거유공자 경사 강일웅 등 3명에게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 혁신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혁신우수사례 발표 및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나 느낀 소감을 발표하는 현장의 목소리 및 각 기능별

혁신업무를 발표했다.

신정배 의정부경찰서장은 훈시를 통해 “혁신은 개선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고 규정에 의한 법집행, 자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족 같은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설명: 신정배 의정부경찰서장이 토론회에 앞서 검거유공자 경사 강일웅 등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신정배 의정부경찰서장은 2월23일 2층 회의실에서 2007년 의정부경찰 업무 혁신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은 개선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랑천이 확 바뀌고 있다’

## 의정부시, 하천정비사업 2010년까지 완료

의정부시가 중랑천 퇴살리기에 이어 자연친화경관 테마공원을 완공하고 있다.

도시심 내대지를 비롯 놀이터까지 녹색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녹지가 부족한 의정부시 곳곳에서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시는 지난해 그린시티로 단장하기 위해 도심지내 내대지를 비롯, 어린이 놀이터까지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시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에는 곤체체육근린공원내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교

체하고 조경트랙을 설치 해 주민 및 생활체육 애호가들의 호응이 높으며, 또한 시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 체육 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후불량 및 단순화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작년말부터 시작해 12월 12일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한 색동어린이공원 이 9번째로 리모델링을 했다.

특히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 제일기간중 첫 번째로 의정부의 첫줄인 중랑천을 서울의 청계천 보다 더 좋게 만들어 시민들

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공사가 한창 추진중에 있다.

시가 2004년부터 중랑천을 서울의 청계천 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 중랑천에 흐르는 물이 많이 좋아졌다. 그 후부터 중랑천에는 철새가 찾아와 즐기고 또한 중랑천에 얼음이 얼어 썰매를 즐기는 시민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랑천에는 양지공원과 중랑천 자연거점운동로,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의 첫줄인 중랑천을 서울의 청계천보다 더 좋게 만들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중랑천 하천정비사업장)

# 유토피아-이탈리아 판화 400년展

## 의정부예술의전당, 24일부터 4월25일까지 전시

2월24일부터 4월25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에서 유토피아-이탈리아 판화 400년展이 펼쳐진다.

의정부예술의전당 특별기획전으로 르네상스의 본거지인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장된 오리지널 판화 100여점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판화는 이탈리아 중심의 유럽에서 15~19세기에 활동한 화가, 건축가, 조각가의 작품을 담는다 그 후에 판화로 창작한 작품들로서, 신화, 문학, 종교, 인물, 자연, 건축 등 다양한 주제로 표현된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이다.

유토피아-이탈리아 판화 400년展은 르네상스 미술의 태동과 절정으로, 바로크 미술, 신고전주의 미술, 그리고 낭만주의 미술까지 근대 미술의 등장 이전의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다.

서양미술사의 400년 동안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로렌스 지베르티, 귀도 리니, 티티아노, 푸생, 루벤스, 앙그르, 윌리엄 터너의 작품이 어떻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판



또한 다빈치의 동시대 작가인 미켈란젤로가 1512년에 완성한 시스템 성당의 ‘최후의 심판’ 벽화를 1802년 12장의 판화로 완성한 작품도 소개된다.

이번 유토피아-이탈리아 판화400년展은 르네상스 미술과 그 이후 작품을 비교 분석하며 감상할 수 있는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전시로 꾸며진다.

이번 작품 전시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400년의 시간동안 인간이 호응하면서 어떻게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며 예술작품을 남겼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토뉴스



## 고대 노동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특강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월24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노동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및 선배와의 대화’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행복을 나누는 기쁨의 소리 울려 퍼져

## 음식평론CEO, 이비카드주식회사 임직원 도움손길

행복을 나누는 기쁨의 소리가 의정부시 자갈동 관내에서 울려 퍼졌다. 전 세계 음식 문화의 맛을 체험

하고 보급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음식평론CEO 2기회 총무와 이비카드주식회사 임직원들이 아이들과 저



##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기우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월23일 오전7시30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도 각계인사 120여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참석해 기우회를 개최했다.

녁식사를 함께 하며 학교생활과 집안생활, 장래계획 등을 이야기하는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만들고, 300만민의 장학금도 전달하여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모두에게 전해 주었다.

행사에 참석한 흥용남 이비카드

대표는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웠고 밝고 씩씩하게 지리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특히 오늘의 인연을 소중한 생각하며 자라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고 말하며, 3월에는 10명의 아이들에게 추가 지원을 약속해 주어 지속적인 만남의 기쁨을 두 배로 만들어 주었다.